

♥ 부산 사랑티켓과 함께하는

The 20th Busan Theatre Festival



부산 연극제 2002

무대 속으로!
관객 속으로!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 주관 :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연극협회
부산연극협회 <http://www.pusantheatre.or.kr> 공연문의 : 645-3759

작/광고기획 S.M.T.051-441-3877

공식 경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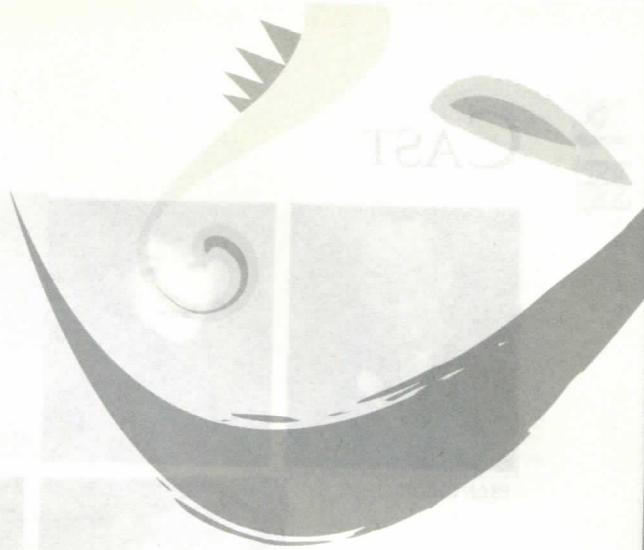
이爾

극단 하늘개인날

4월 20일(토)▶21일(일) 오후 3시, 6시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작/ 김태웅 연출 /곽종필



연출의 말

하늘개인날 대표 곽종필



웃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연극하고 있는 나, 광대의 지배력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 작품에 담겨있다. 삶은 결핍투성이고, 구멍투성이고, 고통스럽고 엄혹하다. 그러나 이런 삶의 시련이나 결핍에 고사되어 허무나 혹은 체념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은 생명력의 활기를 스스로 고갈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삶은 고통과 결핍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지배력은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광대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결국 이 작품에서 "광대의 세계에 대한 지배력은 세속적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광대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온다."

작품 줄거리

때는 조선 연산군조.

궁중배우 공길은 연산의 가학적인 성희의 상대자 역할을 한다. 공길은 몸과 웃음을 바치는 대가로 희락원의 우두머리가 되고, 갖고 싶어하던 비단도포를 연산으로부터 하사 받는다. 녹수는 공길에게 연산을 빼앗기는 것을 시기하여 경희루에서 잔치가 한창일 때 공길의 옷을 벗게 하여 모욕을 준다. 이에 공길은 녹수의 하수인인 형판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놀이를 하고 이를 통해 그를 제거한다. 이에 녹수는 흥내관과 짜고 공길의 필체를 모퉁이 하여 연산과 녹수 자신을 비방하는 언문 비방서를 작성한다. 언문 비방서 사건에 화가난 연산은 범인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데...

STAFF

이...
...



연출/곽종필



무대제작/김인덕

작곡/박철홍



안무/이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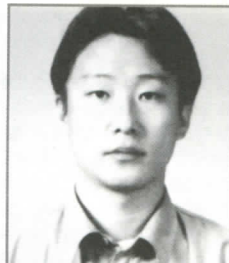
분장디자인/손서운



무대디자인/김유리라



무대장치/허남희



조명디자인/윤준호



의상디자인/김은엽



무대장치/전미현



분장/박은주



의상/김지은



진행/최성락



무대감독/신봉석



무대장치/김영하

2002
BUSAN THEATRE
FESTIVAL

CAST



연산/이정허



공길/최선정



윤지상/이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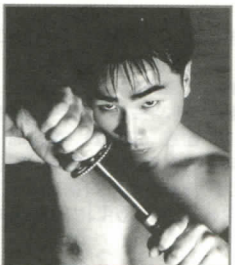
장생/김종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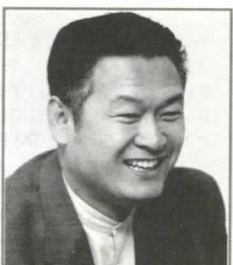
우인, 전령/옥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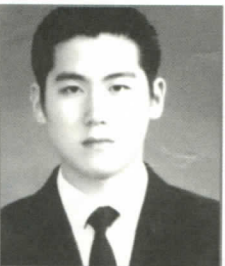
녹수/김혜지



정판수/고인범



우인, 박원종/김진혁



우인/하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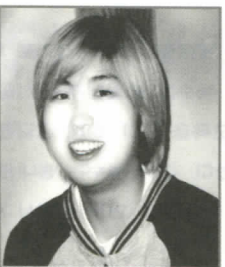
공길/최선정



우인/김영하



우인, 공녀/오석연



우인, 공녀/김현주



우인/김선희

STAFF



연출/곽종필

안무/



의상디자이너/김은연



의상/김지은



2002 BUSAN THEATRE FESTIVAL

2002 BUSAN FESTIVAL